부정출발 실격처리

(창9:18~27)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정출발 실격처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2011년 대구에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가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종목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대회였지만,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뭐 그뿐이겠습니까 육상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남자 100미터 결승이었습니다.
금메달 0순위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단지, 그가 달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연히 1등할 것이고.
'우사인 볼트'잖아요.
대망의 100미터 결승 시간이 되었고, 긴장한 마음으로 선수들이 쭉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땅!' 했다가 다시 한 번 '땅!'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는 출발을 알리는 소리고, 두 번째는 부정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입니다.
누군가 봤더니 우사인 볼트에요.
부정출발 때문에 경기를 다시 하게 될 때는 잔뜩 긴장하고 출발하게 되는 선수들에게 김을 확 빼놓고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부정출발을 하는 선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미터 육상경기는 한번만 부정출발을 해도 무조건 실격이 되게 돼있습니다.
수영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의 부정출발은 한번 만에 실격처리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우사인 볼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괴성을 지르면서 트랙을 못 벗어나고 경기장의 벽을 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가슴이 답답하고 충격적인데, 당사자는 오죽 했겠습니까?

부정출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부정출발 하는 인생, 인생에 부정출발이 일어나면 행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참된 기쁨,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기쁨, 이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정출발 하면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부터 실격처리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순서대로라면 함이 둘째 아들 같은데, 본문 중에 작은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막내인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여간, 함이 무슨 일을 했나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가 담겨지니까 그 포도주를 먹고 만취상태가 돼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하체를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니,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함께 가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집에서 술 먹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잠이 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 위에 덮어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고 있다가 술이 깨서 뒷얘기를 듣게 된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 노아에게는 손자 아닙니까, 손자까지 아들과 싸잡아서 셈과 야벳의 종노릇 할 것이라고 저주해버리는데, 그 저주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시절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주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 기쁠 수 있는 인생, 실격처리 됐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정출발 해서 실격처리 된 상태에서 계속 인생을 영위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서 지금 실격처리 된 상태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안 나오고 수고롭고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가지고 맨땅을 달릴 때처럼 그렇게 수고롭고 어려운 거예요.
실격처리 된 인생을 실격처리 된 줄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실격처리 되었습니까?
출발점에서 부정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정출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이 네 부자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실격처리 되지 않은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무지개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출발점에 관한 얘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 인간에게 당신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끈끈한 관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밝히셨으며 어떠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아담의 출발은 타락 이전의 상태였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출발이 됩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피조물이 굉장히 많아서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아담은 출발합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들여놓아야 될 마음에 선악 판단을 하게 되는 성향이 존재의 뿌리부터 박혀있으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마음에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아기에게는 엄마든 아빠든, 누구에게든지 다…

근데 이게 다 죄인 됨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출발점에 섰던 원래 인간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면, 타락 이후의 인간과는 관계를 하실 수가 없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더러운 인간들이 만지는 세상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인간이 사업하면 사업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엄마가 자식을 기르면 자식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날마다 홍수를 반복해서 보내심으로써 멸절시키시고 청소시키고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출발선을 바꾸십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를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홍수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이제는 출발선을 바꿔서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계획이 악한 계획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먼저 좋다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전적 죄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던 장로님이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사장님이고 어엿한 가장이던 상황을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난 전락이고 말할 수 없는 밑바닥 생활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구제하려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볼 때는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장으로 가장으로 어엿이 살던 그곳이 출발점이 아니라.
그러므로 떳떳하게 사장으로 살던 때 그 장로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노숙자 장로님을 발견하면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아예 노숙하는 상태를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가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닌 겁니다.
노숙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께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나 똑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장님 때에 관계를 맺던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숙자들에게 온 사람들한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노숙자에게 와서 노숙자인 걸 보고 깜짝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함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뭘 그리 대단히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까지 싸잡혀서 그 족속 자체가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시절에 오면서 이런 구약적 저주가 다 풀어지고 모든 사

람에게 다 복음이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라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했다는 겁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함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설정하신 새로운 출발점에서 부정출발 한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규정에 맞는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개 언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극악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출발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계시는 인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아의식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의식에는 죄인 됨을 적용함이 약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죄인 됨을 강하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 됨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죄인 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출발점을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은 아버지 노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아라도 태어날 때부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함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버지 노아를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점점 얘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지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웅으로 본 게 뭐가 잘못이냐?
하여간 영웅으로 봤으니까, 함에게는 술에 만취해서 하반신을 알몸으로 잠들어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간관에서 예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고 하는 이 인간관에서 예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도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내용은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

았다는 데에 의인됨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함은 노아를 영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고는 온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다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류 중에서 왕이죠. 인류 중에 최고의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만 본 거예요.
이게 부정출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문제가 된다면 노아가 문제지요, 술 먹고 만취해서 알몸으로 드러내놓고 자기가 영웅이라고 믿고 있던 함에게 충격을 주고 실망을 주었던 자기 자신이 문제니까 자숙할 일이지, 왜 아들을 그래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신다는 인간관에서 예외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인간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 이건희 씨나 빌 게이츠를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번에 오신 교황님을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건 어떤 일과 같은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시는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끌어들여서 더러워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성향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교황님도 조금만 방심해서 술 좀 많이 마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알몸 내놓고 술 취해 잠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을 인간세상에서 정한 규칙과 가치 기준을 따라서 위대하다고 보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등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망각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총회장님, 박근혜 대통령, 뭐 여지없습니다. 원로목사님 원로장로님, 똑같습니다.
무지개 언약에서 보여 진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그 상태가 바로 그분들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얘기가 방송에 자주 나와요, 돈을 횡령해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게, 타인을 볼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아의식에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누가 누구를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인 된 상태에서는 출발점을 모르면 한없는 죄악의 행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과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느냐 하면, 인간이 태어난 상태 그것을 자연인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상태라고 규정한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해서 인생을 출발하는 자들, 이게 다 부정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잘못된 일을 했다,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받는 그 사람이 부정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사람이 함과 가나안의 자손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과 가정파괴범과 아동 학대를 넘어 아동을 잔인하게 죽인 엄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출발점에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원수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생각에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못되게 구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그거 왜 놔두십니까?
출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출발선에서 자기 자신을 자연인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훌륭한 인간이 되자, 자기 계발서를 읽음으로써 훌륭한 인간이 되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악의 행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악의 행위를 보더라도 함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인이고 그도 그런 죄인인데, 단지 그가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죄인 됨을 모르고 자기가 정상인줄 알고 부정출발을 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삶에서 실격처리 돼가지고, 한없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악한 행위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잖아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함 같은 경우는 돌에 맞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면수심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로 치는 거야?' 분이 나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죽여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들 자기 새끼 안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이유가 출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를 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안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십자가사건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보는 것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고 보면 십자가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게 꼭 나한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공분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지, 저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일본의 아베가 미워죽겠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인간이니까 저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지, 놀랄 것도 없다, 그러니 저에게도 나에게처럼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니까 온갖 악행과 더러움이 다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교황님, 대통령 각하, 예외 없어요. 다 십자가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주변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 내가 출발선을 부정출발하

지 않고, 그 악행 하는 자에게 과연 정확하게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대응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정출발, 이것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에서 실격처리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간관을 자아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한 인간관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보고 타인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그저 우울하고, 기쁨 대신 걱정과 근심으로 싸여있기만 한 이유는 내 인생의 출발선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 부정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맞는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